

“아기 낳기 버겁다”...韓 행복수준 세계 하위권

2023 세계행복보고서...한국 137개국 중 57위

핀란드 6년째 1위...아프가니스탄 행복도 최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만족할 만큼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점점 더 아이를 낳기도 기르기도 힘든 사회가 버겁기만 하다.

지난 30년간 한국은 눈에 띄는 성장으로 빠르게 부를 축적했지만, 막상 내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3일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행복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전 세계 137개국 중 57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과 비교하면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5.931점)와 콜롬비아(5.630점), 튀르키예(4.614점) 등 세 나라뿐이다.

행복도 1위는 핀란드(7.804점)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10위권 내에는 4위 이스라엘(7.473점), 10위 뉴질랜드(7.123점)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덴마크(7.586점), 아이슬란드(7.530점), 이스라엘(7.473점), 네덜란드(7.403점) 순이었다.

아시아권으로 보면 싱가포르(6.587점)가 25위로 가장 높았으며 아랍에미리트(6.571점) 26위, 대만(6.535점)이 27위로 뒤를 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30위), 카자흐스탄(44위), 우즈베키스탄(54위), 말레이시아(55위)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64위)보다는 행복도가 높았지만, 일본(47위)이나 미국(15위)보다는 한참 뒤처졌다.

137개국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1.859점)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행복 순위는 70위(5.661점)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훨씬 낮은 92위(5.071점)였다.

보고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자원, 삶의 선택 자유, 공동체 나눔(관용), 부정부패 지수 등 6개 항목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1인당 GDP가 미치는 행복수준은 지난해 1.851점에서 올해 1.853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건강 기대수명은 0.841점에서 0.603점으로 크게 내려갔다.

‘삶을 선택할 자유’는 지난해 0.414점으로 올해 0.446점으로 다소 올라갔지만, 여전히 낮은 점수에 그쳤다.

국민의 낮은 행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03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1위 자리를 리투아니아에 내줬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불명예 꼴리표를 달았다. OECD 평균 자살률 11.1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20.3명)와도 차이가 컸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0대의 자살률은 7.1명, 20대의 자살률은 23.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0.1%, 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광양만권경제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라희호텔에서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전문가 초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첫번째 교육은 ㈜아산 기술연구소 김근호 이사가 ‘자동차 시장 및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인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을 비롯하여 플라잉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최근 자동차 산업 및 미래 핵심 트렌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두 번째는 ‘세풍산단 기반시설 현황 및 상세’라는 주제로 하여 ㈜동아기술공사 이창기 부사장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업유치에 있어 실무직원들이 알아야 할 산단의 전력 공급계획과 용수량 산정, 폐기물 처리 계획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관련법규와 기준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달콤한 ‘전남산 배’ 맛에 반한 두바이 소비자들

전남도가 2일(현지 시간) 아랍 에미리트 최대 도시 두바이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K-Fresh Zone)에서 중동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전남식품 판촉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슬람 문화권인 현지 수요를 감안, 전남의 대표 농수산물 중 총 8개 품목(배·유자·김·김치·파프리카·고구마·배추스·두부스)을 선정해 시식과 판촉행사를 진행했으며, 파프리카는 한국 최초로 두바이에 시범 수출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징수 위해 모든 역량 동원”

채권확보 어려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광주시가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대상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시가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출

국금지 한 고액체납자는 모두 13명이다.

시는 지난 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개인 131)에 체납액은 8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개인 16)에 체납액은 18

억 원에 이른다.

개인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체를 운영해 온 A씨가 지방소득세 등 6건에 12억30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법인은 제조업체인 S산업이 취득세 등 3건에 2억1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택수색·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한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업체 경진 최다...성과 풍성

전국 10곳 중 곡성멜론 최우수·해남고구마식품 장려상



(왼쪽)곡성멜론 최우수·해남고구마식품 장려상 수상.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선 전국에서 추천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대해 엄격한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전문심사위원 발표심

사를 통해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에선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이 최우수상, 해남고구마식품(주)이 장려상에 선정돼 농식품부장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우수사례 선정 업체는 온·오프라인 홍보 및 다양한 판촉 지원 등을 받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이 주

/권형안 기자

광주시 2024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일자리 3만2370명

월 29만~76만원 지급...소득수준·경력 등 평가 선정

광주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344억 원을 투입,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66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3만237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형 사업 2만4054명 ▲보육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4632명 ▲매장운영 등 시장형 사업 2495명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

모집 대상은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광주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한다.

참여 희망자는 4일부터 15일까지 신분증·주민등록등본·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포,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을 활동하고 활동비 29만 원을 지급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76만1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별도 책정된다.

시는 참여자의 소득수준과 활동역량, 경력 등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 안전·직무교육 등을 받고 본격 사업에 참여한다.

손수지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전남, 항공우주산업 등 투자유치 순풍

4개 기업 712억 원 규모 서면 투자협약 체결

순천·광양에 160여 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광양시와 협력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시아티엔씨 주식회사, 케이스틸㈜, 거인이엔씨 주식회사와 712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과 광양에 16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울촌제1산업단지에 508억 원을 투자해 민간 우주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위한 발사체 생산시설 중 하나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1, 2, 3단 조립을 수행할 공장을 신설한다.

아시아티엔씨 주식회사는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90억 원을 투자해

금속용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제조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케이스틸㈜는 광양 황금산업단지에 59억 원을 투자해 배관 작업과 기계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시설 등을 신설한다.

거인이엔씨 주식회사도 광양 의신일반산업단지에 55억 원을 투자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기존 주력산업 분야를 비롯해 항공우주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남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기업이 잘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조순의 기자

현대차·기아, 11월 62만5천대 판매

전년 대비 현대차 5.0%·기아 1.7% 증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달 국내의 시장에서 총 62만5803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60만4116대)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의 판매 증가율(5.0%)이 기아(1.7%)를 웃돌았다.

먼저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외에서 전년 대비 5.0% 증가한 36만5576대를 팔았다. 국내의 판매가 고르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국내 판매 신장이 돋보였다.

먼저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대비 18.3% 증가한 7만2058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7980대, 쏘나타 4895대, 아반떼 5828대 등 총 1만9321대를 팔았다.

RV는 팰리세이드 3157대, 쏘타페 8780대, 투싼 3205대, 코나 3209대, 캐스퍼 5701대 등 총 2만6783대 판매했다. 포터는 9255대, 스타리아는 3342대 판매를 기록했다. 중대형 버스과 트럭은 총 2468대 판매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023대, GV80 3874대, GV70 2910대 등 총 1만 889대가 팔렸다.

해외 시장에서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29만3518대를 판매했다.

기아는 지난달 도매 판매 기준 국내의 시장에서 전년 대비 1.7% 증

가한 26만227대를 팔았다. 국내 판매가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해외 판매가 늘며 전체 판매량이 소폭 늘었다.

기아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전년보다 3.6% 감소한 5만22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로 9364대가 판매했다.

승용은 레이 4587대, K5 3783대, K8 2799대, 모닝 2111대 등 총 1만4944대 판매했다.

RV는 쏘렌토를 비롯해 스포티지 5982대, 카니발 5857대, 셀토스 4446대, 니로 1661대 등 총 2만9094대 판매했다.

상용은 봉고Ⅲ가 5855대 팔리는 등 버스를 합쳐 총 5984대 판매했다.

해외 판매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20만9637대를 기록했다. 차종별 해외 실적의 경우, 스포티지가 4만1218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다. 셀토스가 2만9437대, K3(포트레)가 1만9436대로 뒤를 이었다.

특수 차량은 국내에서 300대, 해외에서 268대 등 총 568대를 판매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